

# 5·18 암매장 발굴 조사 '3대 난제'부터 풀어야

- 1 **행불자 범위·숫자 파악-신청 441명 중 82명만 공식 인정**
- 2 **군 문서 조작 의혹-발굴된 시신이 한달 뒤 예비군 교육?**
- 3 **37년 지나 지형 변화-대규모 조사 인력 투입 철저 조사**

## “시신 발견해도 덮어두고 공사” 제보 등 전국민적 관심 필요

5·18기념재단이 자체 암매장 발굴 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한 재단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가 아닌 재단에서 암매장 관련 제보자에 의지하는 현 발굴 시스템으로는, 최대 441명으로 추정되는 암매장 발굴 조사를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5·18이 일어난 지 37년이 지나면서 제보자가 암매장을 지목해도 지형 변화 등으로 쉽게 찾을 수도 없는 탓에 대규모 조사 인력 등이 필요해진다. 또 군 당국이 5·

18 희생자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의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5·18재단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암매장 관련 당사자가 작성한 약도 메모를 중심으로 옛 광주교도소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암매장지 발굴을 시작으로, 광주 인근 암매장 예상지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18 행불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도 주제마다 제각각인 탓에 체계적인

암매장 발굴이 이뤄질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행방불명자로 신청된 사람은 441명(5월 단체 주장과 일치)에 이르지만,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불자는 82명에 불과하다. 당시 5·18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군 당국의 각종 자료 조작으로 행불자 규명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1980년 5월23일 전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에 의해 희생된 채수길씨는 같은해 6월2일 주민의 의해 발굴됐지만, 군 기록 조작으로 1990년까지 5·18관련 희생자나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에 1980년 6월23일~28일 예비군 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됐다는 이유였다.

또 광주시에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불자 중 상당수가 암매장과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5·18 직후인 1980년 5~6월께 가족이나 시민에 의해 희생자 시신을 찾은 지역은 옛 광주교

도소 내(8구)와 인근(3구), 전남대 공대 뒷산(3구), 주남마을(2구), 남구 노대동(1구) 등 모두 4곳에서 17구뿐이다.

지금까지 행불자를 찾으려는 노력과 제보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실패한 근본적 이유로 당시 군 당국 철저한 은폐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크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당시 암매장 은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있다. 1980년 5월26일 광주교도소 인근 야산에서 암매장된 서만오(당시 25세)씨를 발굴한 가족들도 지난 1990년 발견된 '광주 오월민중항쟁 자료전집'에서 "계엄군이 시체를 은폐하기 위해 잔디때로 덮어 묻은 뒤(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10cm정도의 나뭇가지를 꽂아둔다는 말을 듣고, 인부 10명을 동원해 하루 넘게 찾았고, 결국 논과 접한 비탈길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면서 "당시 주변에 시신 5~6구가 더 있었는데, 며칠 뒤 다시 가보니 발굴 전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광주에서는 건설업자들이 암매장된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그대로 덮어두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1985년 오월청년동지회에는 "운암동 주공아파트 공사장에서 시신과 책가방이 발견됐지만 현장 소장이 입단속을 시키며 작업을 강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결국, 행불자와 암매장지를 찾는 데는 전 국민적 관심과 특히 암매장에 참여한 당사자의 양심적 제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내의 한 5·18연구자는 "당시 암매장에 참여했던 군인도 지금에 와서 찾아보려고 하면 지형이 바뀌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암매장지 발굴은 당사자의 제보와 함께 체계적인 발굴 계획, 대규모 인력 투입 등이 요구되는 만큼 법에 의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 1997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추진한 세 차례 조사에서 행방불명자 시신을 찾지 못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故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서울경찰 광수대가 수사 부인은 출국금지 조치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백지영 부장 검사)에 배당하고, 서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기록,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제출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권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연합뉴스

## 예물시계 되찾은 50대 예비신부 '휴'

○다들달 결혼을 앞둔 50대 예비신부가 집 앞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예물시계가 담긴 손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찾아 안도의 한숨.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50)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40분께 광주시 소재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떨어뜨린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때마침 담배를 사러 나왔던 이웃 주민 조모(47)씨가 손가방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다는 것.

○가방 안에는 1500만원짜리 스위스제 R사의 명품시계와 현금 25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실직 상태로, 핸드백을 열어보니 현금이 많이 있어 순간 욕심이 나 훔쳤다. 하지만 시계가 그렇게 비싼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

## 전남도 5·18 기념사업회 출범...5개년 계획 수립 추진

광주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전남에서도 본격 추진된다. 5·18 기념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남 곳곳에 산재한 사적지를 발굴·관리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유공자와 5월 단체 대표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남도의회 등이 참여한 '전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가 지난 22일 출범했다. <사진>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남지역 내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5·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관리·복원 ▲5·18 기념공간 조성 및 보존 관리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 1억원을 확보해 '5·18 기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종합·체계적인 기념사업을 펼쳐갈 방침이다.

또 안내판·표지석이 건립된 8개 시·군 74곳을 재점검한 뒤 가치가 높은 곳을 사적



2017년 제1차 전라남도 5·18 기념사업위원회 회의

지로 지정하고, 전남지역 5·18 역사현장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5·18 기념사업 조례 등에 근거해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 기념행사 지원, 기념물 설치 및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안진 전남도 5·18기념사업 위원장은 "5·18 진상규명 등 문재인 정부의 5·18 재조명 의지에 발맞춰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광주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념사업이 전남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상페스티벌 북적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2017 광주청소년 상상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마약 투약자 이어 중간 공급자까지 검거

### 광주동부경찰 추적 성과

광주동부경찰이 마약 투약자에 이어 마약 중간 공급자까지 붙잡았다.

동부경찰은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최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버스터미널 앞 길가에

서 엄모(63)씨에게 50만원 상당 필로폰 1.2g을 판매하고,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필로폰 10g과 1회용 주사기 6개를 보관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5년 11월 마약 관련 법 위반으로 1년 10개월형을 선고 받은 등 동종 전과가 23회에 이르며, 엄씨와는 교도소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엄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모텔에

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마약에 취해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마약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스스로 신고해 출동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엄씨에게 마약 구입 경로를 추궁한 끝에 최씨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동구 대인동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최씨 등을 검거한 김관솔 강력3팀장은 "최씨가 본인이 중간 유통책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최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총책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